

한교총, 연합운동 공로자 및 협력 기관장 초청 오찬

창립 10돌 앞두고 감사행사, 협력기관장 등 80여명 참석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광림교회에서 '연합운동 공로자 감사 및 협력기관 기관장 초청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내년으로 다가온 한교총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연합운동 공로자 감사 행사'와 '협력기관장 초청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합기관의 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대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교총 명예회장과 회원 교단에서 추천한 전 총회장, 주요 협력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그간의 연합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국교회의 공적 사역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70여 시민단체, '태아 살인 합법화 추진 즉각 중지하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청와대 앞서 대규모 규탄 집회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어연)은 5월 15일(금)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 정부의 낙태 합법화 정책 및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히 규탄하는 연합 집회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집회에는 종교계(개신교·가톨릭), 의료계(간호사·조선사),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해

일반 청년과 다자녀 부모 등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낙태 합법화 및 악물 낙태 도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제양규 교수(태어연 운영위원장)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만삭 태아 낙태 사건을 언급하며, "살아있는 아이를 사형 악물 주입이나 영아 살해 방식으로 종결짓는 것은 낙태가

아닌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도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라며 "정부가 낙태 합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김길수 목사(생명운동연합)는 상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국민 1호인 태아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며 현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과제 98번 낙태 합법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태어연은 향후 태아 생명권 수호와 위기 임신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청원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 빌리 그래함 대회' 성료... 3만여 명 운집

월 그래함 목사,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경기 북부 10개 시·군 교회들이 함께 준비한 '2026 의정부 빌리 그래함 대회'가 지난 17일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열려 수만 명의 성도와 시민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의 손자인 월 그래함(Will Graham) 목사가 감사로 나섰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참석했으며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초청된 전도대사자, 이주민들도 함께 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김길수 목사(생명운동연합)는 상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국민 1호인 태아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며 현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과제 98번 낙태 합법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월 그래함 목사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랑한 삶 끝에 돼지우리까지 내려가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죄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죄는 처음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 죄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

게 만든다"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돼지우리에 사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월 그래함 목사는 설교 말미에 참석자들을 향해 결단을 요청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간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실제로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도서 나와 기도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약 5천여 교회가 함께 준비했으며, 특히 다음세대와 이주민 초청에 집중했다. 준비위원회는 약 1천 명의 이주민을 초청하고 1천 명 이상의 복음 상담사를 배치해 결신자들이 지역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회 이후에는 백서를 발간해 경기 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전도운동과 교회 연합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간 소개

팀 켈러, 죄를 말하다



팀 켈러, 죄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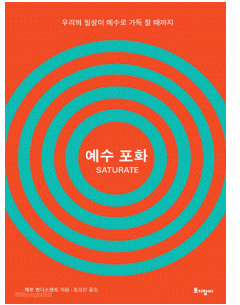
세상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 어째서 사방에 악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가. 우리는 왜 선을 원하면서도 자신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는가. 대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이러는 것일까? 팀 켈러는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날마다 보도되는 절망적이고 참혹한 인간의 악과 고통의 원인을 추적한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생물학, 심리학, 사회 구조적 문제로만 환원하려는 현대 세속 지성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정면으로 마주하기 불편해하는 인기 없는 진실, '죄'를 정확하게 '죄'라고 명명하며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삶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준다. 강조하며, 추악한 죄인들을 견져 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 눈앞에 선포하게 그려 낸다.

이 책은 표류하는 영혼을 위한 답이다. 복음이 내놓는 명징한 해답이다. 단순히 죄에 관한 신학적 정의를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적인

절망과 부조리에 정면으로 응답한다. 시리즈 설교 "죄의 여러 얼굴"을 토대로 한 이 신작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 밑바닥에서 불붙어야 할 단 하나의 소망인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이끈다. 죄가 단지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진식하는 복잡한 실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혼이 갈망하는 근본적 치유의 길이 열린다. 내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를 직시할 때에야 나를 위해 예수가 해 주신 일의 위대함을 비로소 헤아릴 수 있다.

출판사/도서출판 두란노 저자/팀 켈러 역자/윤종석

예수 포화



하나님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곳곳에 예수님의 입재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포화'다! 모든 도시, 모든 일터, 모든 학교, 모든 가정! 예수님의 입재로 포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 포화'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에서 제자훈련과 사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그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소마교회 사역을 통해 보여 준다. 먼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일상을 예수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일들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

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 포화'를 이루어나가기 원하신다. 진정으로 복음에 흠뻑 젖은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입재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이 책이 던지는 '예수 포화' 도전에 응답해 보자.

출판사/도서출판 두란노 저자/제프 밴더스텔트 역자/장성은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대표 김재홍 목사, 이하 UBF)는 지난 5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9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10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가운데, 전국에서 4천여 명의 선교회 회원들과 7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년 대학생들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이사가 말씀에 기초한 드라마와 만성 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 65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UBF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제19회 세계선교대회 개최

선교사 7백여 명 참석 세계선교 비전 나눠

선교 비전을 돌아봤다.

이어 참석자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포(이사야 6장)"라는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렸다. 말씀을 전한 UBF 세계대표 린워드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상한 심정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포' 하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 부르고 계신다"고 말했다.

UBF 소속 선교사와 현지인 목사, 한국교회 등 800여 명은 이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 알펜시아에서 '선교사 목사 수양회'를 가졌다. 수양회에서는 각 대륙 미래 사역 방향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UBF는 1961년 故 이사부 목사(미국 남장로교 배사라 선교사)에 의해 시작됐다.

당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 지도자로 양성하여 국가와 세계를 섬기고자 하는 비전으로 출발했다.

UBF는 1961년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돼 1년이 채 되지 않아 약 80개 성경공부 모임으로 확장됐다. 현재 국내 약 90개 지부와 120여 캠퍼스에서 대학생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94개국에 2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캠퍼스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당선 사례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 드리며 교단을 잘 섬기는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교단의 발전과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

공약(公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의 미래준비
2. 협력과 통합을 통한 건강한 교단
3. 은퇴기금 확보 및 사례비 보증제도
4. 교단행정시스템의 전면적 DX화
5. Reuse사역 및 BCM사역 통한 미자립 교회 등 지원
6. 담임목사 전원 대의원 파송

운양예배당

방화예배당



서울 방화예배당 : 서울시 강서구 금강화로 52 ☎ 02-2662-5591
김포 운양예배당 : 김포시 모담공원로62 ☎ 031-987-9106

YouTube 검색 : 두목TV